

- 제14회 입학식 식사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4기 입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입학에 축하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오신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문회장인 양승철 변호사와 임태규 원우회장 및 원우회 임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던 2020년에는 입학식도 하지 못하고 개강일도 2주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입학식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14회 입학식은 대면으로 진행되어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도 만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로스쿨 입학시험을 치르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치열했던 경쟁을 뚫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트기 전 새벽녘에 어두움이 가장 짙게 깔리듯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두움의 긴 터널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어두움이 곁히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우리 모두를 비출 때가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교육부는 대학 수업도 이제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학 내 확진자 비율이 5%, 10%에 이르는 각각의 단계별로 방역지침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도 이에 따라 금년도 1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를 교육이념으로 추구해왔습니다.

1) ‘인간존중’이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남을 귀하게 받드는 정신을 말합니다. 2) ‘실사구시’란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3) ‘세계일가’란 세계 인류가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교육이념에 맞추어
첫째, ‘정의와 봉사를 지향하는 법률가’
둘째, ‘창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법률가’
셋째, ‘국제적 역량을 발휘하는 법률가’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충실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아주대 로스쿨 1학년생으로서 예비법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스쿨 입학은 법률가가 되려는 여러분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입학하는 아주대 로스쿨은 경기도 유일의 법조인양성기관으로서 그동안
“잘 가르치는 로스쿨”이라는 명성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인 아주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성실하고 실력 있는 법률가들로 알
려지며 주변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여러분의 선배 중에서 취업하지
못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지난 2년 동안 매년 3명씩 로클릭 시험에 합격하였고, 재학생
중에 빅펌 취업 컨펌 소식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제8회 변사에서 30명만 합격하여 합격률이 크게 낮아지고 그 누적된 여파로 합
격률 순위가 계속 떨어지기도 했지만, 합격자 수는 제9회 39명 제10회 42명으
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에 치러진 제11회 변사에서는 합격자 수가 50명에 육박하여 합격률 전국
4위를 기록했던 제7회 변사 합격자 수를 상회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합격률 순위도 크게 올라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제11회 변사는 법전원 건물인 연암관 5층 강의실에서 치러졌습니다.

지난 3년간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던 바로 그곳에서 변호사 시험을 보았습니다.

9회 졸업생들만 해도 변호사 시험 기간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보아야 했습니다.

시험장 근처 호텔을 예약하고 그곳에 모든 수험자료를 들고 가서 낯선 곳에서 숙
식하며 공부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소 머물던 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시험 보는 도중 쉬는 시
간에는 학습실 자기 자리에 내려와 공부하다가, 시간이 되면 시험장으로 올라가

면 됩니다.

그리고 법전문원 기숙사도 그동안 낡고 오래된 건물에 있었는데, 새로이 신축하여 올해 3월 1일 준공되는 법전문원 건물 바로 뒤편에 있는 11층 건물의 기숙사로 이전하여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정좌석제인 24시간 학습실은 아주대 로스쿨 개원 때부터 존재해 왔으며 선배들의 맘과 열정이 배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꿈과 열정만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아주대 로스쿨이 제공하는 최적의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곳 아주대 로스쿨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학 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학 공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학부에서 공부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학습할 내용이 많고 외워야 할 내용도 많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로스쿨 3년의 삶은 고단한 수험생활임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법률가가 되려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큰 강을 반드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주대 로스쿨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과목별로 최적화된 공부 방법론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주대 로스쿨은 최근 2년 동안 6분의 실무 교수님들을 새로이 전임교원으로 모셨습니다. 판사 출신 3분과 검사 출신 1분, 그리고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등 총 6분의 유능한 실무 교수님들이 새로이 임용되어 여러분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수님들을 신뢰하고 따른다면,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변호사 시험 합격의 길로 잘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고무적인 일은 여러분의 선배들인 졸업생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2년 전부터 졸업생 63명이 10년간 십시일반 2억 5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정하여 매년 2,400만 원의 장학금을 재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3기 졸업생 조철현 변호사는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약정하고 매년 500만 원씩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기 졸업생인 김용휘

변호사가 법전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하였고, 2기 졸업생인 양승철 동문회장도 3,000만 원의 법전원 발전기금을 기부하였습니다. 아주대 로스쿨과 협력관계에 있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작년부터 매 학기 500만 원씩 연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외부 장학금만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재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대 로스쿨은 동문 선배들과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러분의 로스쿨 3년의 생활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4기 동기생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아주대 로스쿨이란 한배를 탄 동반자입니다. 나중에 졸업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동기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주대 로스쿨 제14기 입학생 여러분!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위대한 도전이 아주대 로스쿨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구현하시길 바랍니다.

아주대 로스쿨은 “입학한 학생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자세로 여러분이 입학하여 졸업하기까지 더 나아가 졸업한 이후에도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영수 원장